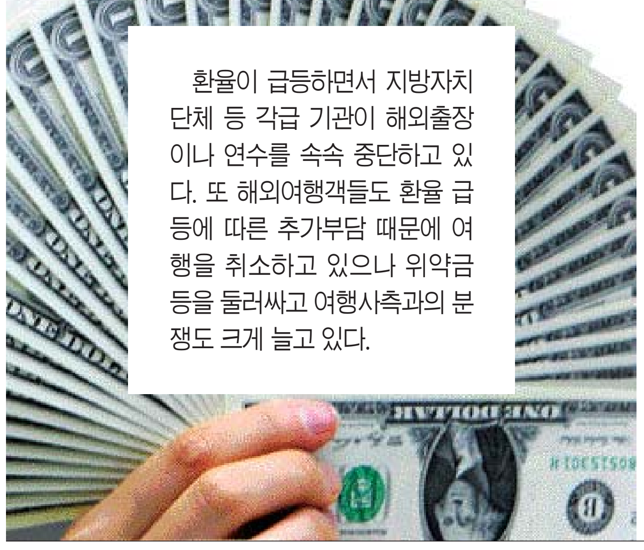
환율 패닉 공무원 해외 출장 속속 중단

국내 연수 등으로 대체…해외 여행 예약 취소 곳곳 마찰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이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또 해외여행객들도 환율 급등에 따른 추가부담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고 있으나 위약금 등을 둘러싸고 여행사측과의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공무원 해외 출장 중단=전남도는 최근 공무원의 각종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또는 여행을 국내경기가 호전되는 시기까지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온 '국외 선진지 비교연수 팀훈련'이 전면 중단됐고, 단순 비교연수·견학과 같은 일반 국외연수도 쉬기로 했다.

목포시의회는 해외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국내 연수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목포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6박8일의 일정으로 계획된 의원 국외연수 일정를 취소했었다.

광주시 동구도 올해 말에 계획하고 있었던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중단했다.

평소 모범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한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계획된 해외연수 일정은 환율이 폭등하면서 잠정 중단됐었고, 최근 일정 자체를 모두 취소했다.

조명환 동구청 행정계장은 "해외연수 취소는 환율상승 등으로 국내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제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여행객 불만 급증=최근 여행사들이 해외 여행객들에게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일정 취소시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외국여행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건수는 6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0건에 비해 두 배나 많아졌다. 이중에는 광주·전남지역 고객 40여명도 포함됐다.

다음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인 유모(33·북구 중흥동)씨는 얼마 전 예약을 했던 A 여행사로부터 "환율이 올라 일인당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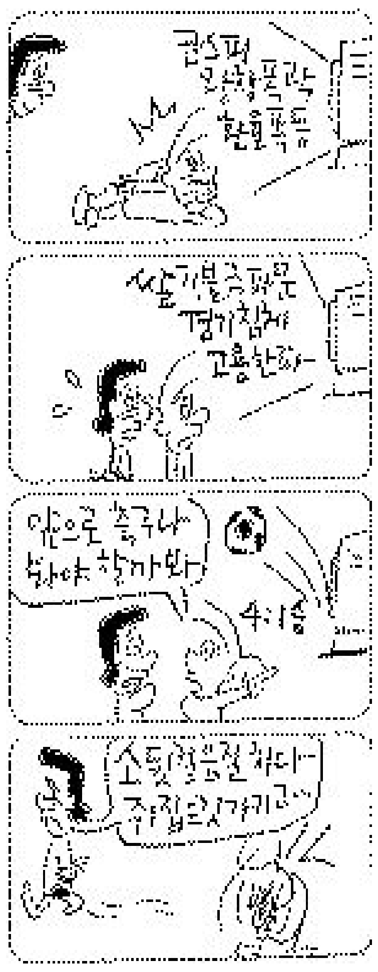
유씨는 "한 달 만에 신혼부부 여행비가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불어났지만 여행사 측은 이미 예약된 상품이라 변경은 할 수 없고,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달 말 홍콩 가족여행을 예약했던 김모(여·39)씨는 "최근 여행사로부터 1인당 25만원의 추가요금 부담을 통보를 받았다"며 "항공권 발권도 마쳤는데 추가요금을 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행사측은 "여행상품 판매가 2~3개월 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상되는 환율 부분은 고객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여행경기도 얼어붙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고객들의 불만까지 쏟아져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채희종·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참 〈7629〉 김종두



새끼 호랑이 또 비극

우치동물원 3개월된 벵골산 숨져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호랑이가 죽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우치동물원에서 사육중이던 벵골산 호랑이 6년생 암컷 '아롱이'가 새끼 호랑이를 낳았으나 3개월만인 지난 7월 25일 뒷다리 골절 및 대사장애(신체의 물질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로 죽었다.

이 새끼 호랑이는 태어난 이후 우치동물원 측의 배려로 일반 관람객들에게 임시 공개돼 큰 인기를 끌었었다. 이곳에서 새끼 호랑이가 태어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년 6개월만이었다.

지난 2006년 10월 15일 태어난 벵골산 호랑이새끼는 자연 포육 상태로 길러지다 어미에게 물려 죽었었다. 호랑이나 사자 등 맹수가 키울 여건이 안될 경우 갓 태어난 새끼를 잡아먹는 이른바 '식자증'에 의해 죽은 것이다.

이번에 죽은 새끼 호랑이의 사인은 2006년과 전혀 달랐다. 외부 충격에 의한 다리 골절이 직접적인 이유였기 때문이다. 우치동물원측은 '식자증'을 우려해 올해 태어난 새끼호랑이를 관리사무소 1층 인공 포육실에서 사육사의 보호 아래 키워왔었다.

이 새끼 호랑이는 죽기 3일전 우치동물원의 요청에 의해 전남대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뒷다리 골절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인공·자연 포육 모두 실패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새끼호랑이의 죽음에 대해 주변 환경과 예산지원 등 우치동물원의 사육 여건이 여의치 않아 생긴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광주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높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남에 따라 다음엔 포육 방법을 달리해 새끼를 키워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피할 땐 이렇게" 16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막한 '빛고을 119 안전체험 한마당'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이 소방대원들의 안내로 피난 종합체험 등 각종 체험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주최로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현금 수송 직원이 2억 빼돌려

광주서부경찰, 30대 구속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현금을 수송하는 직원이 거액을 빼돌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6일 은행 현금 수송 차량에서 돈을 훔친 광주 모 은행의 현금 수송원 심모(35·광주시 북구 유동)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9일 광주 지역 13개 현금 입출금기에 입금하려고 2억4천만원을 싣고 가던 현금 수송 차량에서 7천만원을 몰래 빼내는 등 12일까지 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 1억여 원의 사채를 썼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심씨는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빚을 진 사채업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쇠고기 원산지 둔갑 대형 음식점

광주지검, 혐의 일부 확인

광주지검은 16일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팔다 적발된 광주의 한 대형 음식점의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H 음식점의 영업행위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H 음식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에 비해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호주산 쇠고기 물량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미국산을 사용했다"며 "폭리를 취하려고 원산지를 속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5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H 음식점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형사 고발을 해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형사 고발 이외에도 지난 7월 H음식점을 이용한 천모씨 등 피해자 22명을 대신해 광주지방법원에 1인당 5만~150만원씩 모두 1천400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사실 조회 등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허위 표시 및 판매와 관련된 국내 첫 공익소송으로 기록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뺑소니 증거 없애려 계곡에 차 버려

쌍나팔

○…이른바 '대포차'를 몰고가던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고 차량을 계곡에 내다버린 대학생 3명이 경찰에 덜미.

○…광주서부경찰은 16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증거를 인멸하려 한 광주 모 대학 3학년 홍모(23)씨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일 밤 11시께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EF 쏘나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정모(5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홍씨는 지난 8월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를 구입, 타고 다니던 중 사고가 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친구 이모(23)씨 등 2명을 불러내 차량 안에 있던 서류 등을 없애고 영암의 한 야산 계곡에 차량을 은닉. /이종행 기자 golee@

백종헌 프라임 회장 구속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는 16일 그룹의 백종헌 회장을 1천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백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회장은 지난 3, 9월 계열사인 S사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사에 183억여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하는 식으로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하고 프라임그룹 계열사에 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